



헨리 비 아이어링  
회장  
제일회장단 제2보좌

**빛** 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등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상징 중 하나입니다. 예수님이 지상에서 태어나셨을 때,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.

선지자들은 빛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.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년 전에 레이먼인 사무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.

“하늘에 큰 빛이 있어,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. ...

또 보라,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, 너희가 결코 본

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.”(힐라만서 14:3, 5)

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. 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바쳤는데,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.

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합니다. 우리는 구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영이며, 일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정신입니다. ●

2011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발췌함.